



제목	하늘과 땅의 노래: 이사야 44:24-45:8에 대한 주석적 이해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66)
발행일	2013. 4. 26.
저자	최만수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5-62
ISBN 또는 ISSN	1229-330X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이사야 44:24-45:8을 주석적으로 접근한 논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사야 44:24-45:8은 고레스 신탁으로 이해해 왔다. 이사야 44:28과 45:1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를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사야 44:24-45:8을 주석적으로 이해한 결과, 해당 본문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고레스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세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주장한다. 본문의 배경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 살던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전령으로 파송되는 천상회의에 참여한 것이다.

저자는 본문의 형식이 외적으로는 찬양을, 내적으로는 예언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45:8은 서언과 결언의 역할을 하며, 44:24-45:7은 하나님의 전령/증인이 전하는 내용을 알려 준다. 즉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아(‘기름부은 자’)로 세우셨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44:24-45:8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형식의 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고레스에 대한 신탁으로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위엄과 구원을 선포한 하늘과 땅의 노래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